

‘지식보단 지혜’, 글쓰기의 기본

글쓰기의 ‘독심 인생’ 담긴 《글쓰기 만보》 펴내
집필에만 1년… ‘대학시절부터 생각했던 책’

최근 출간된 소설가 안정호 씨의 책 《글쓰기 만보》는 작문법 강의노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하얀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등 전작들의 무게감을 아는 독자라면 여느 글쓰기 가이드 북과 다른 점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호기심이 생겨날 법 하다. 또 그가 150여 권의 번역서를 작업하고 《가짜영어사전》 《안정호의 영어 길들이기》 등 영어 교수법 저서를 펴낸 것도 ‘안정호’라는 이름을 단순히 ‘소설가’라는 직업으로 한정짓기에 무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책에는 저자의 ‘독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이 어떤 지름길도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일임을 작가의 체험담으로 보여준다.

‘요령으로는 독심을 당하지 못한다’

지난해 펴낸 베트남 회고록 《지압 장군을 찾아서》 이후 일년만에 접한 그의 책이 소설도 역사도 아닌 ‘글쓰기 안내서’라는 점에 대해 작가는 “오랜 세월 준비한 기획서”라고 설명했다.

“책을 보면 알겠지만 단시일 내 만들 수 없는 분량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영어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당시 외국 작문 가이드 도서를 접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책을 펴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문학의 사조와 풍토 등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서 중심의 교본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쓰기 만보》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비슷한 성격의 여느 책들과 달리 작가 안정호의 사사로운 개인사부터(물론 그의 소설과 글쓰기에 관련한) 엄격하고 간소한 어투의 글쓰기 강의론까지, 이번 책은 집필만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애초 의도는 기초적인 내용만 담으려 했는데 문체와 구성, 인물 설정 등 몇 가지 깊이 있는 내용이 첨가됐습니다. 초고만도 400쪽에 달했는데 구상한 내용을 덧붙이니 700쪽이 훌쩍 넘었어요. 삭제, 수정을 되풀이 해서 500여 쪽 완성분이 나왔죠.”

대학 3년때(은마는 오지 않는다)…《글쓰기 만보》, 체험 바탕한 가이드북

안씨의 공은 텍스트에만 있지 않다. 표지 그림을 비롯해 본문을 꾸민 60여 컷의 삽화를 직접 그렸다. 만화가를 동경했지만 ‘환쟁이는 굶는다’는 아버지의 만류로 생각지도 않은 영문학도가 된다. 대학에서 맞은 첫 여름방학부터 그는 ‘문학’이 뭔지 알고 싶어 도서관을 집처럼 드나들었다.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에 책이라는 건 번역문학 전집 정도 뿐이었어요. 하루 서너 권씩 읽으니 며칠 지나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30권이 넘는 외국 글짓기 교본도 그 때 읽었죠.”

책을 읽을수록 점점 문학의 맛과 깊이를 깨달았다. 자연스럽게 창작에 대한 욕구가 생겼고 이어 결과물을 배출했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쓴 겁니다. 4년 내내 방학 때 도서관을 다니며 문학과 영어 공부를 했더니 나중에는 모든 작품이 연계해서 내 머릿속 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펴낸 책 《글쓰기 만보》는 그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와 글쓰기 가이드북이 합쳐진 형태다. 분량

면에서는 물론이고 내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을 전한다. 조언을 구하는 지인이나 지망생들의 글은 일부러 읽지 않는다는 안씨는 냉철한 비평가를 자처하며 관련 에피소드를 책에 담아냈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막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글은 쉽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냉정히 말해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번 책은 글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하려고 썼습니다.”

안해도 되는 일 안하는 것, '다독'의 비결

‘미련하게 힘든 글쓰기가 요령 좋은 글쓰기를 이긴다.’(《글쓰기 만보》中)

거침없이 표현한 말 속에서 그의 글쓰기 철학을 읽어낼 수 있다. 책에서 강조한 글쓰기의 기본은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작가를 희망한다면 요령과 지식이 아닌 “진짜 자신의 지혜”를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을 알려 달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수백 수천개를 알아도 자기가 그 이상의 것을 개발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학력과 실력은 별개인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표피적인 몇 가지 정보만 얻고는 자기 지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남들보다 앞서는 겁니다. 소설도 같아요. 창작이라는 것은 창조인데 남들과 같은 일을 하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는 안씨의 작가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생각을 숙성시키고 창의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존 스타인벡의 문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책을 다 읽었어요. 내가 해외 교본을 30권 이상 읽은 것도 글 쓰는 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그런 시간이 나느냐고 묻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안해도 되는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면 자신만이 할 이야기가 생깁니다.”

모든 글쓰기는 '도전'... '쓰면 쓸수록 어려워'

그의 방에는 작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 자료 서랍장이 따로 있다. 주제, 용도별로 구분 해 언제든 살펴볼 수 있다.

“글쓰기는 모든 작품이 도전입니다. 작품은 매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권태가 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맨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합니다. 구상 하고 있는 작품 중에는 대학교 때부터 자료를 수집해오는 것도 있어요. 작가인생이란 앞·뒤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성공적인 작가 인생을 걷는 중이지만 글이란 쓰면 쓸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웠다고 한다. 안씨는 책의 에필로그에서 글쓰기의 부담과 작가로서의 회한을 솔직히 담아냈다.

“인생을 20년 단위로 구분해 생각하곤 하는데 《힐리우드 키드의 생애》를 쓰고 난 후 작품이 잘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글 쓰기가 두려웠죠. 마흔 세 살에 데뷔한 나는, 배우고 습득한(책 읽은 시간) 기간이 길었기에 작가인생에 도움이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늙은 나이지만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 배워야 한다. 똑심 있는 놈한테는 재주 있는 놈이 당할 수가 없다.’는 그의 말은 오랜 글쓰기과정 속에서 터득한 지혜로 다가온다. **[출판]**

취재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세상의 어떤 경쟁에서도 조금이나마 성공과 승리를 거두려면, 학력이 아니라 실력을 쌓아야 한다. 실력을 쌓으려면 스스로 자꾸만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그리고 글 쓰기 훈련을 할 때는, 어떤 다른 훈련을 거칠 때나 마찬가지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목적을 알면서 임해야 한다.”-(《글쓰기 만보》中 107p.)